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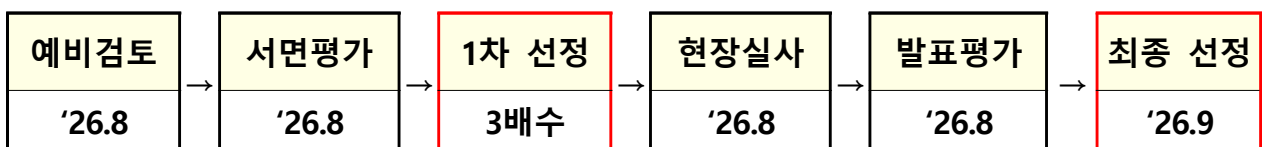
보도시점 : 2026. 5. 26.(화) 11:00 이후(5. 27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5. 26.(화)

교통 불편 줄이고 관광·공공서비스 더 가까이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

- 5월 27일 설명회 개최... 공공기여·민간 참여 기반 초기 상용화 모델 발굴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도심항공교통(UAM)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「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」를 추진한다.
 -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UAM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.
 - 특히, 섬·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, 관광 활성화, 공공의료·행정 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중점 발굴하고, 기체·운항·통신·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지방정부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,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.
 -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,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.

< 공모 주요 일정 >



- 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, 지역 수요 적합성,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,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.
 - 특히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,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”며,
 - “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(www.molit.go.kr)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훈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	류윤하 (044-201-4306)
			주무관	박세희 (044-201-4281)



□ **개요**

- 국내·외 UAM 상용화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, 지역 여건과 수요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및 초기 상용화 준비 필요
- 일부 지방정부는 사업계획 등을 추진 중이나, 초기 재정 부담 및 전문성 확보 한계를 고려시 정부 지원을 통한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

☞ 지역 특성에 기반한 **사업모델 구체화 및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 계획 수립 지원대상 공모 추진**

□ **공모 계획**

- (공모기간) '26. 5. 29(금) ~ '26. 7. 28(화) * (신청주체) 광역지방정부의 장
- (선정사업)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초기 상용화 준비를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1건 선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(지방비 1:1 매칭)
- (지원내용) ① 사업계획, ② 건축기획, ③ 건축설계 비용

구 분	주요 내용
사업계획	▲ 지역 수요 분석을 통해 교통·관광·공공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 도출 및 버티포트 기본구상, 최적노선 분석, 전파환경평가 등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원
건축기획	▲ 버티포트 입지 및 규모 검토,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건축기획 지원
건축설계	▲ 버티포트 조성에 필요한 계획, 중간, 실시설계 지원

- (평가절차) 전문분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①서면평가 후 3배수 선정하고, ②현장실사, ③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사업 선정

□ **향후 계획**

- 사전 설명회(5.27) → 사업공모(5~7월) → 평가(서면평가, 현장실사, 발표평가, 8월) → 결과발표(9월) → 국비교부(9~10월)